

주간 총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 42:1)

2023년 제 3차 성찬식 및 성금요일 예배

일시: 4월 7일(금) 19:30 장소: 본당

* 성금요일은 전교인 일일 금식입니다

* 성결한 삶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특별찬양

일시: 4월 7일(금) 금요집회 시

담당: 할렐루야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부활주일 예배

일시: 4월 9일(주일) 1~3부 예배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 2:5~11)

설교: 한규삼 담임목사

부활주일 특별찬양

일시: 4월 9일(주일) 찬양예배 시

담당: 베엘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선교대회 4.13(목)~19(수)

언약을 붙들고
세계로 향하여

13일(목)	사역자 환영 감사예배
14일(금)	선교특강 / 금요집회 사역자 소개
15일(토)	- 각 국가별 선교 간담회 및 기도회 - 한국 기독교 선교사 기념관 및 양화진선교사 묘원 탐방
16일 (선교주일)	- 각 국가별 선교부스 운영 - 현지 사역자 교구·부서 방문 - 외선부 의료선교 진행 - 현지사역자 지원 지명헌금 - 선교주일 특별찬양예배
17일(월)	선교사설립 기독교 학교 방문
18일(화)	성경전래지 기념관 및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탐방
19일(수)	선교사 환송 예배

인간에게는 욕구가 존재하고, 욕구는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것은 식욕일 수도 있고, 집요한 소유욕이나 권력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굶주리면 그것은 최악의 적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께 굶주린 마음만이 승리를 가져다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굶주려 있으신가요?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상이 주는 것들로 배불러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절제하시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청년 연합예배

일시: 4월 2일(오늘) 14:00

장소: 2교육관 4층 (하나홀)

대상: 청년1부, 청년2부, 브릿지

강사: 이사무엘 목사(창일교회 담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주제: 마태의 눈으로 읽는 예수님의 수난

일시: 2023년 4월 3일(월) ~ 4월 7일(금), 05:00

4/3(월)	마 26:57-68	당당하신 예수님, 흔들리는 베드로	한규삼 담임목사
4/4(화)	마 27:1-10	가룟 유다의 최후	한규삼 담임목사
4/5(수)	마 27:11-26	유대인의 왕	한규삼 담임목사
4/6(목)	마 27:27-37	십자가의 즉위식	이성환 목사
4/7(금)	마 27:45-56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규삼 담임목사

* 고난주간(4월3일~7일) 갈릴리홀 개방: 06:00 - 22:00 (개인기도실로 사용)

* 특별새벽기도회 기간(4월2일~7일) 숙소 안내: 영아부실(여), 유치부실(남), 18:00 - 09:00

*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인 4월 4일(화)에 기도원 집회는 쉽니다.

2023년 제1차 학습, 세례식(성인) 안내

학습, 세례식: 4월 30일(주일), 찬양예배 시

교육일정: 4월 9일(주일) ~ 23일(주일)

대상: 학습(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세례(학습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신청: 선교관 1층 사무국, 온라인 접수(QR코드)

교구 및 부서 담당 교역자

신청마감: 4월 9일(주일) 까지

문의: 박동진 목사(010-4482-0043)

* 교육일정은 본지 7면 참조



기드온이 있고 없고의 차이

(사사기 8:32-35)



사사기의 '사사'는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한자로는 선비(士)와 스승(師)이라는 글자로 기록되는 좋은 의미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사사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든 면에서 불완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다만, 고대 사회의 리더들은 사람들 사이의 송사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사사는 영어성경에서 Judge라 번역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린 시대는 어둡고, 모든 것이 퇴보하며,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각 지파에 맞게 땅을 분배하였지만, 그 땅을 실제로 점령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며 항거하는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타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점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정복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역정복을 당하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삿21:25)” 왕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 중,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품어지길 소원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마음에 간직될 때, 지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그리고 300 용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2-33절)” ‘기드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사가 없어지면 안정이 없어졌고, 사사가 있으면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곧 사사기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곁에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크지만,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달려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닮을 내림으로 주변을 바꿀 수 있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삿6:6)” 기드온 시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은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무렵에 나타나 수확물을 모두 건어갔습니다. 약자에 대한 조롱과 멸시이자,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사 중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의 그는 앞장서서 미디안과 대적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디안의 노략을 피하여 몰래 타작하던 연약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삿7:12)” 미디안과 맞서 싸우고자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만, 골짜기를 메뚜기처럼 메운 135,000이 넘는 미디안의 강성한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워 떠는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22,000명에 해당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셨기에 기드온은 이들을 물가로 이끌고 가서 신중하게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300명만 남겼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처럼 “물을 받아 훔아먹는 비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으셨다”고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예가 아닌 소수를 뽑으셨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더라도, 정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300 용사에 해당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싸우는 방법도 특이했습니다. 100명씩 세 패로 나누어 양 손에 항아리를 뒤집어쓴 횃불과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300 용사들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러내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어둠 속에 일렁이는 횃불 앞에 미디안 군대는 두려움에 빠져 자중지란을 일으켰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칼을 들지 않았음에도, 적군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호와와 칼이자 기드온의 칼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삿8:28)” 비록 기드온이 죽은 후에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쉬움과 교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삿8:27)” 기드온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열 두 명의 사사 중 그 누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르신 사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300 용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영적 용사가 되었다면, 기드온의 시기에 사사기가 끝났을 정도의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었기에 정말 아쉬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삿6:16)” 원어로 ‘내가 반드시’는,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의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와 동일하게 불러주신 기드온은 신중하기는 했지만 겁이 많았던 양면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였음에도 그는 거듭 확인했습니다. 주변이 아닌 양털 몽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에도 놀라기는커녕 양털이 아닌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재차 기도했습니다. 명확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때, 기도하며 곳곳이 가다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해 주십니다.

“여호와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삿6:34)” 이토록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사역은 자기 대에서 끝났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큰 용사임에도 기드온이 영적인 큰 용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300 용사들이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시대를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둡고 어려운 역정복의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가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받은 후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는 잠깐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시대의 300 용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시대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 한규삼 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he Difference Between
With or Without Gideon

(Judges 6:32-35)

Rev. Kyu Sam Han

'A judge' in Judges is not a word which is commonly used in everyday life. It has a good meaning recorded as a scholar(士) and a teacher(師) by Chinese characters, but it is somewhat distant from a judge in the Bible. Judges were not perfect leaders like Moses or Joshua but imperfect leaders in every aspect until kings were established. However, since leaders in ancient societies had to settle lawsuit issues between people, 'Sasa' is translated as a judge in the English Bible. The period when judges ruled was dark, and everything was retrogressed and painful. Though they entered the land of Canaan and divided the land to give the proper allotment for each tribe, it was not easy for them realistically to conquer the land. The Israelites compromised the natives who resisted at the risk of death. As the result, the people of God gradually began to face the reverse-conquest. Perhaps, this age we are living in may be the time of a reverse conquest economically, socially, and spiritually. This is why we are interested in Judges.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Jdg 21:25). I wish among the stories of the period in which people could do whatever they want to do, the story of Gideon would be embraced in our lives. It's because when the lesson of the Bible is treasured in our heart, it becomes our wisdom and strength.

Gideon and 300 soldiers

"Gideon son of Joash died at a good old age and was buried in the tomb of his father Joash in Ophrah of the Abiezrites. No sooner had Gideon died than the Israelites again prostituted themselves to the Baals. They set up Baal-Berith as their god" (Jdg 8:32-33). With Gideon or without Gideon was a repeated pattern in Judges. When there was no judge, no security was in Israel, and when there was a judge, the sense of stability was in Israel. The difference between with Gideon or without Gideon was the image of whole Judges. The difference between with a man of great faith beside us and without him is obviously big, but our faith should not depend on someone. Our faith should grow and be matured until we anchored in Jesus Christ and could change the neighboring place. "Midian so impoverished the Israelites that they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 (Jdg 6:6). In the days of Gideon the race that harassed the Israelites was the Midianites. The Midianites appeared around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harvested the fields, and took all the crops away. It was both the mock and contempt toward the weak and the image that the strong trample on the weak. It was Gideon, a judge that God established for the Israelites crying in the midst of suffering. He was one of the greatest judges, but he was not a person who took the lead to face against the Midianites before he was called by God. Rather, he was a fragile person threshing wheat secretly to keep from the Midianites' plundering. "The Midianites, the Amalekites and all the other eastern peoples had settled in the valley, thick as locusts. Their camels could no more be counted than the sand on the seashore." (Jdg 7:12). In order to take on Midianite army thirty-two thousand Israelites came out. However, among them there were some people who were afraid of the enormously strong Midianite army of over 135,000, who had settled in the valley, thick as locusts. Gideon, following the word of God, sent twenty-two thousand men trembling with fear of Midianite army back. I hope you and I will not belong to 22,000 men who are afraid.

God said ten thousand men are still too many. Gideon took them down to the water and left three hundred men who carefully drank from cupped hands. There are some exegetists like Flavius Josephus, a 1st-century Jewish historian, who translate 'God chose the men who are coward so that they lapped water'. However, the result is the same. God chose a small group, not elite. The reason why Gideon and 300 soldiers could win was because God was with them. Even though you have fear and are not an elite, you can become warriors when you experience God's leading and see what God works. I

hope you and I belong to three hundred soldiers. The way in which Gideon and three hundred soldiers fight was unique. They divide them into three companies, and they had trumpets and empty jars in the hands of all of them with torches inside. When Gideon blew a trumpet, 300 soldiers broke the jars and blew trumpets and revealed fires. In front of noisy sounds and torches flaming in the darkness Midianites turned on each other in fear. Even though Gideon and 300 soldiers did not hold their swords, enemies were killed by the swords. It was Jehovah's sword and Gideon's sword. "Thus Midian was subdued before the Israelites and did not raise its head again. During Gideon's lifetime, the land had peace forty years." (Jdg 8:28). Even though it was back to be like in former days after Gideon died, peace came while Gideon was present.

Regretfulness and lesson

"Gideon made the gold into an ephod, which he placed in Ophrah, his town. All Israel prostituted themselves by worshiping it there, and it became a snare to Gideon and his family." (Jdg 8:27) Gideon was really a blessed person. There was no judge before whom God appeared and summoned in person like Gideon among twelve judges in the book of Judges. Therefore, if 300 soldiers who fought with Gideon had been the ones who had truly followed God and believed sovereignty of God, revival would have taken place to finish Judges in the period of Gideon. It's really unfortunate because the stream of the times could have changed. "The Lord answered, "I will be with you, and you will strike down all the Midianites, leaving none alive." (Jdg 6:16). 'Surely I will' in the original word is the same word as "I AM WHO I AM." when God appeared to Moses in the flames of fire in a bush in Exodus. Gideon whom God summoned the same way that He had called Moses had the duplicity of being cautious but timid. Even if the calling of God was certain, Gideon repeatedly confirmed it. Though the prayer that there is dew only on the wool fleece was responded, far from being surprised, he prayed again that God should make the fleece dry and let the ground be covered with dew. It was to make firm once again the clearly revealed will of God. It was not to embed his own will in the state of not knowing the will of God. When any problems take place despite the clear will of God, you pray and continue to go firmly, then God in person confirms them.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on Gideon, and he blew a trumpet, summoning the Abiezrites to follow him." (Jdg 6:34). Even if the presence of God was so clear, the ministry of Gideon ended in his own generation. This is the reason that Gideon could not become a great spiritual warrior even though he was a great warrior who subdued Midian. If 300 soldiers who directly witnessed with their own eyes the work of God had been spiritually awakened, they could have changed the era. The part we should take as a lesson is also here. Gideon knew God is the king. Our king of now is also God. In order to change the dark and hard period of the reverse conquest, the believers serving God as the king should be increased. Believers serving Jesus as the king should be united. Believers serving God as the king, after experiencing God like 300 soldiers of Gideon and being trained, should become witnesses. 300 soldiers of Gideon tasted the glory for a short period, but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300 warriors of our era serve Jesus as the king, become the people of God who can turn the darkness of the era into the light, and change the era.



인도네시아 1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후기

-스마랑, 3월 13일~20일-

3년의 코로나로 막혔던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다. 작년부터 준비한 인도네시아 선교를 온라인으로 할 때 잘 실감이 나지 않았다. 통신도 자주 끊기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보았던 친구들을 실제로 보니 더욱 반갑고 기뻐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선교 하는 과정 가운데서 묻고 또 물었다.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준비하고 인도네시아에 왔다. 오전 오후 다른 사역지에 가서 기도했고, 말씀을 전했고 찬양을 했다. 언어준비가 더 충분해야겠다. 25개의 말씀에 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노방전도도 필요하다. 코로나 전에 선교 훈련에서 더 보완해서 현지인과 더 충분히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선교를 통하여 현지 교회 교인들과 짝하여 교회 주변 가정 심방과 노방 전도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주님이 오실 때 까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민병욱 권사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선교를 잘 마침에 감사드린다. 오고 가면서 늘 차에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5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섬겼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다. 현지의 청소년들을 만나서 했던 사역들도 큰 감명을 주는 시간들이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무슬림 나라에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뿌지 전도사님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아와 힘든 아이들 6명을 먹이고 입히고 신학교를 보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키우는 일들을 봤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어느 곳이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한다. 나에게도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해 본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허락해 주시길 기도한다. 뿌지 전도사님과의 만남에 감사하며 그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한다.

신동미 권사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저 감사할 뿐임을 깨닫게 된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믿고 기도한다. 복음은 나를 통해 전해져야 할 사명이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본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앞서 가신 그길. 눈물 없이 고난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길 이기에 오늘도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널리 파도처럼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은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한다. 고 박정혜 권사님의 영혼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오늘의 열매로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라디카 교회, 꼬마위 교회, 수머워너 교회, 반둥안 교회, 라랑안 교회를 위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기도한다. 또한 뿌라따의 고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지아연 권사

인도네시아 선교를 세 번째 다녀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열악한 환경과 건강이 안 좋은 목사님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에 저의 예배의 태도를 반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선교의 포커스가 젊은 층에 더 집중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라도 예배당이 열려 있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 그 당연함과 감사를 잊고 산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곧 전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송지훈 집사



23년 충현 평생대학원 봄학기 〈스마트폰 2DAY 기초 특강〉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기회로!!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교회생활에서도 스마트폰은 필수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으면 공동체와의 연결이 약화되고, 각종 정보에서 소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어르신들 에게 필수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스마트폰 2DAY 특강]을 기획하게 되었다. 선착 순 50명인데 예비 10번이 넘도록 많은 어르신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 주셨고 차세대 청년 강사가 16명이나 지원해 주셔서 지난 3월 18일(토), 25일(토) 두 주간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특강이 진행되었다. 젊은이들은 열심을 다해 지식을 전달하였고, 실습에 도움을 드리며, 정성을 다하였고, 어르신들은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시고, 또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 조금이라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노력하셨다. 주님 안에서 여러 세대가 어우러지며 특강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의 교회를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평생대학원의 많은 일꾼들이 이번 특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교회의 큰 지원 아래 특강을 무사히 마쳤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멋진 일들을 꿈꾸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강사 동유창 집사, 브릿지 공동체〉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충현교회 평생대학원이 주관한 2회에 걸친 “2day 스마트폰 기초 특강”은 한마디로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평소 생활에 유용하고 편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사용방법과 조작이 미숙하여 답답할 때가 많았고 그때마다 바쁜 자식들에게 의존하곤 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기능과 조작법을 배우고 습득하여 이제는 자력으로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로한 탓으로 이번 교육을 망설였지만 용단으로 큰 소득을 얻은 셈입니다.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치며 수고해주신 권소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청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기원 집사, 83세, 10교구〉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스마트폰의 신세계로 풍당 ~~

어린이가 어른, 노인들까지 들었다 하면 꼭 빠진다는 스마트폰! 안될 것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폰 ~~~ 그러나 배움 기회가 없어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대학원에서 “2day 스마트폰 기초 특강”이라는 배움의 기회를 주신다니!! 할렐루야.. 재밌고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정보와 각종 기능들의 신세계에 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만 꼭 짚어 유익하나 빠지지 않는 만큼 적당히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신 쌤.. 참을 인(忍)의 인내함으로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도 친절하) 미소천사 예쁜 청년 쌤!! 부부 강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췌미 배워서 수준(up, 업) 높은 학생 되겠습니다. 덕분에 교양 있는 충현 평생 대학원생 되어볼까 합니다. (가능 !! ^^) 이런 기회를 주신 교회와 평생 대학원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사랑합니다.

〈채영애 권사, 75세, 8교구〉



서로 다른 세대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 사역이 되었던 스마트폰 특강 시간

강사로 투입되기 전에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와 익숙하지 않은 세대 간의 격차를 생각하며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정작 특강이 시작되어 스마트폰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로 강좌를 시작하자, 청강생 한 분께서 악성 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어떤 게 위험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토로하셨습니다. 새로운 기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무지로 말미암아 도전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 폰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고 이를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꺼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사 집체 교육을 통해 수강생의 시점으로 소통하고 가르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미리 알려주신 덕분에,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수강생 위주로 섬기는 특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강에서는 적극적으로 수강생분들의 니즈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강사와 수강생 모두에게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앙생활의 보급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를 하나로 묶는 교회의 공동체 사역에도 조금 기여하지 않았을까 감히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좋은 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사 이홍재, 청년2부〉

스마트폰 강의를 통한 뜻밖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무심하고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한(?) 엄마가 어느 날엔가 슬며시 스마트 폰을 내밀며, 아무개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물어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쑥스러움에 딸인 제게조차 물어보기까지 쉽지 않았을 엄마의 주저함에 마음이 쓰이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의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되어 우리 생활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요즘, 다른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걸까? 사용법을 알려줄만한 가족들이나 자제분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은 매일이 막막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스쳐 보낸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리로 부르시는구나!’하고 주저 없이 자원했습니다. 간단한 사전 논의와 강의 자료를 점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 반에 참여하신 모든 수강생들이 저희 엄마와 비슷하신 연배의 어머님들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하심과 결심하심이 저를 이끄셨는지, 짧지 않은 강의 시간을 채우며 오히려 힘이 샘솟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기능을 하나씩 사용해보며 이해하시고, 만족 해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임이 깊게 깨달아 졌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강의 전 집을 나설 때보다 체력이 더 충전된 기분마저 들었어요. 나의 지혜로는 측량도 할 수 없는 큰 뜻과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강사 김잔디, 브릿지 공동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지난 3월 4일에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단 세미나 내용을 신습니다. 위조지폐 감별사가 위조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지폐의 특징을 잘 파악하는 하는 것이듯이,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된 기독교 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기본인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 성경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추가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 추가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장하거나, 혹은 성경 66권 중에 일부를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몰몬교는 몰몬경을 성경을 대체하는 경전으로 주장합니다. 1세기 말시온은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직통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처럼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 신론

신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위격(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온전한 연합 속에서 상호 교통하시면서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세 위격은 구별되십니다. 구약 시대의 성부 하나님께서 역할을 바꾸어 가면을 쓰고 신약의 성자로 나타나셨고, 이후 승천하시어 또 역할을 바꾸어 성령을 오셨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러한 이단을 양태론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인격)으로 존재하시고, 각각의 인격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영원한 상호 교통을 통해서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하면 그릇된 이해로 나아갑니다. 성부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은 우리 내면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 인간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이나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개나 돼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깃든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이며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며,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생각과 마음의 사고가 마비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일반적인 도덕적 삶은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가 없으며, 의인을 찾아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우리 밖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 기독교론

기독교론의 핵심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요1:14, 롬9:5 등) 1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야 두 번째 아담과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해서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주장한다면 이단입니다.

▶ 구원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오직 믿음 외에 행위적인 요소들을 구원의 조건을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 경계했던 이단들은 대부분 율법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안식일이나 절기나 행위를 구원의 조건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착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즉 선한 삶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윤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칭의만 강조하고 합당한 삶과 회개를 거부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칭의와 성화를 함께 말합니다.

▶ 교회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은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수난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부름 받았습니. 교회 공동체에 침투해서 공동체를 허물고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혼들의 심리를 조장하여 그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음란과 거짓말과 위협과 폭행을 일삼는 지도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머리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 종말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은 종말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늘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 기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구체적인 재림의 날짜를 제시하고, 추종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만 그 날에 도적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순결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은 현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기영 목사>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선교주일 특별찬양대 모집



일시 : 4월 16일 주일찬양예배
대상 : 선교 기도동역자 등 선교의 열정을 품은 총현의 모든 성도
찬양곡 : Way Maker
문의 : 선교훈련부 조동일 집사(010-7575-6363)

금요 집회를 위한 중보기도단 모집



역동적인 금요집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여는 마중물로 불씨가 되어
기도회가 성령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한: 4월 9일(주일)까지
방법: 총현기도실로 지원서 제출
문의: 김원철 차장 010-9121-5910 예배위원회 중보기도부
홍명주 전도사 010-2772-4856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2:12>

고난주간에 특별히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도 기간: 고난 주간 4/3(월) ~ 4/8(토)

진행 방법:

- 총현기도실 게시판 작성시간표에 희망하는 끼니에 이름을 적기 / 아침(오전6시~낮12시), 점심(낮12시~오후6시), 저녁(오후6시~오전6시)
- 작성한 날에 한 끼니 금식하면서 1시간 기도
- 기도하는 장소는 교회 또는, 자택에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기도
- 중보기도부에서 기도 가이드 제공(총현기도실에 비치)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전시관 및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를 위한

총현 과거 역사 자료 수집

교회설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 전시관과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전시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자료를 대여해 주시면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집자료: 1. 총현10년사, 총현20년사, 총현25년사
2. 김창인 목사와 총현교회
3. 월간총현 연도별 합본 혹은 날권
4. 교회수첩 (1975~1989년)
5. 교회요람 (1990~2001년)

수집기간: 4월 23일(주일)까지

자료접수: 70년사 편찬위원회 (선교관3층 303호) 담당: 정인선 권사 010-3800-2240

※ 원본 자료는 스캔 작업 후에 반드시 돌려 드립니다.

2023년 제1차 학습, 세례식(성인) 일정 안내

날짜	시간	학습교육/담당자	장소	세례,입교 교육/담당자	장소
4월 9일(주일)	12:10~12:50	성경, 하나님, 인간 (위안복 목사)	제1교육관 602호(6층)	성경, 하나님, 사탄 (전영재 목사)	제1교육관 501호(5층)
4월 16일(주일)		죄, 예수님, 예배 (위안복 목사)		구원, 성령, 교회 (전영재 목사)	
4월 23일(주일)		성도의 생활, 신조 (위안복 목사)		종말, 재림, 성례 (전영재 목사)	
	추후공지	문답(교구별, 부서별 장소)		문답(교구별, 부서별 장소)	
4월 30일(주일)	주일찬양예배	학습,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예배 2:50분 전까지 입실 바람			

